

“아~ 더워”...유통업계, 본격 여름 사냥

광주신세계, 높아진 온도에 하절기 식품위생 집중 관리 돌입 이마트, 5월 에어컨 매출 신장...자외선 차단제·의류 할인도

5월 초여름 더위가 지속되면서 지역 유통가가 이른 ‘여름 마케팅’에 나섰다.

13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5월 에어컨 매출 증가율은 매해 100%대에 이른다.

전년과 비교한 5월 에어컨 매출은 2017년 141.6%, 2018년 126.3%, 2019년 159.6% 등 매해 급증하고 있다. 선풍기 5월 매출 증가율도 2017년 59.1%, 2018년 88.7%, 2019년 101.2%에 달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광주 지역 5월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5월부터 에어컨 등을 미리 알뜰하게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냉방기전 기획전을 평년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하절기 식품위생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신세계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집중 관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해당 품목은 육회, 육회비빔밥, 생갯잎

김치, 양념계장, 간장계장, 새우장, 전복장, 콩국물, 거피떡볶이 9개이다. 광주신세계는 이 기간 동안 이들 품목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김밥 재료인 지단과 시금치, 전복 등 비가열패류, 빙수-음료에 사용하는 식용얼음은 사용제한 기준을 둔다.

광주신세계 신선식품 매장 직원들은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냉장 판매시간(5시간), 냉장 보관 온도(0~10도) 등을 준수하며 식중독 예방 일일 모니터링을 펼친다.

또 자체 운영하는 식품 실험실을 통해 특별관리품목과 시기별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식품이나 변질 우려가 큰 식품 견본을 수거해 5가지 미생물(식중독 세균) 실험검사를 실시한다. 이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쇼핑카트, 유모차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유아시트 등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지역 대형 유통가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과 여름 의류 등을 대거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들어선 각 화장품 매장은 자외선 차단 크림을 선보이고 있다. 자외선 크림의 종류는 튜브·팩트·스틱·스프레이형 등으로 나뉘며 수칙에 따라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이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과 효과는 다르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매장은 관련 제품 ‘1+1’, ‘2+1’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의류 ‘노스페이스’ 매장은 페트



13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1층 광장에 조성된 장미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24일까지 운영 시 북구 망월동 화훼농가로부터 구매한 꽃들로 조성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달 1층 광장에 신안 튜립 포토존을 마련하고 신안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튜립 화분 300개를 구매해 구매 고객에 나눠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리 매장서도 사용 가능해요”...재난 지원금 특수 노린다

편의점업계 할인 행사 진행 대형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 홍보물 부착 연계 소비 기대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가능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체크카드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약국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서울 매장만 가능)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임대 매장 (개별 가맹점) 배달 어플리케이션 현장 결제 헬스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알라블라는 서울 매장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대기업 계열사, 유통·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물, 배달업 등) 대형 전자 판매점 위생업종 (발 마사지 등) 유흥업종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면세점 상품권 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귀금속 업종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보험

자료/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업계는 재난지원금 ‘특수’를 노리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CU는 5월 한 달 간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구매하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사 할인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GS25는 15일부터 생활 안전 상품 122종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화폐로 22가지 상품을 구매하면 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15일까지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즉석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는 제외됐지만, 대형마트 3사는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연계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이날 진행한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프랜차이즈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못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다”며 “재난지원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홍보물을 붙이고 결제 전 미리 이용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간편조리식품 매출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간편조리식품으로 나들이를 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4월29일~5월6일 간편조리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간편식 종류 ‘밀키트’ (Meal Kit) 매출은 358% 경증 뛰었고 가정간편식(63%), 가정식델리(47%), 쿡킹델리(31%)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6일에 걸친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관련 매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이마트 측은 분석했다.

자체 밀키트 상품 ‘피코크’를 내놓은 이마트는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 나섰다.

김양호 광주점장은 “나들이음식으로 간편조리식품이 인기”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간편조리식품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